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맞손'

도-농식품유통공사, 협약 체결… 기후위기 등 따른 식량안보 강화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식생활 문화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확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춘진 aT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 이른바 ESG' 가치를 확산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 및 홍보 ▲기후위기 등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실천 ▲농수산식품거래소와 전북생생장터 간 온라인 협력을 통한 산지와 수요기업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식생활 개선 캠페인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대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춘진 aT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김관영 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식생활 문화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가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도민들께서도 가정과 직장 등에서 저탄소 식문화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며 "전북의 역점 사업인 농생명분야에서도 ESG경영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수산업의 미래, 우리가 지킨다'

수산업경영인 전북대회, 30일 부안서 개최

풍어제 · 치어방류 · 음식품평회 등 행사 '다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제9회 수산업경영인 전라북도대회가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들의 마인드 함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9회 수산업경영인 전북대회' 행사가 오는 30일 부안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연합회가 주최, 부안군연합회가 주관하고 전북도 등이 후원하고, 수산업경영인과 어업인 가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풍어제·치어방류 및 기념식·수산물 음식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수산업 경영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수산업경영인 및 관계 공무원 32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부안군수 표창을 수여해 어업인들의 자긍심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1981년부터 올해까지 1,692명(어업인후계자 1,280명, 우수경영인 412명)의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등 수산물 발전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어촌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어촌 활력을 주도하고 있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전북 어촌의 미래를 담당할 수산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수산업이 미래의 식량 산업이자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발굴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농협이 지난 26일 장수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추석 성수품 원활한 공급 '만전'

전북농협, 명절 대비 농산물 수급동향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추석 성수기간 중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6일 장수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대표 박평열) 등의 현장을 방문해, 농산물 재고현황과 과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추석 성수품인 사과·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입고 및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수기간 중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른 추석에 따른 출하가능물량 감소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상승 등 농업인, 소비자 등이 모두 힘든 상황에서 고생스럽지만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최대한 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추석 성수기 소비자 가계 부담완화를 위해 29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전북생생장터 온라인몰에서 제철제맛 기획전으로 햅쌀(햅쌀 10kg+현미1kg)을 약 30% 할인 판매하며, 라이브커머스(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30일 무주사과, 31일에는 곶감, 표고버섯 등을 10~30% 할인 판매한다. /김재훈 기자

농협 순창지부, 추석 맞아

순창군에 쌀 · 장학금 전달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는 지난 26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인재양성 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지역 쌀을 순창군에 전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명절이면 지역 소외계층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다"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준 농협 순창군지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순창군도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지부장은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A여직원, 밥 짓기 등 상사로부터 갑질 피해 입어… 업무와 무관

회식 등 참석 강요당해… 참석 않을 경우 퇴사 압력 받기도

고용노동부는 여직원에게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원 소재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 진행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은 물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짓고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오는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는 등 평가를 받아야 했고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에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